

David Turner 박사, 요한복음, 세션 8, 요한복음 6장

© 2024 데이비드 터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8과, 중요한 식사와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6:1-71.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대한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보았을 때부터 예수께서 안식일에 자기의 행실에 대하여 종교지도자들과 변론하시더니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하시고 다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행할 뿐이라고 가르치시니라 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도 문제가 있고, 모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6장으로 이동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다 북동쪽 지역으로 여행하시는 과도기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골란 지역으로 듣는 곳과 거의 같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라니(Golani) 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골란은 갈릴리 바다 동쪽의 다소 높은 평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서술적 흐름을 간략하게 따라가면, 예수님께서서는 거기에 먹을 것이 거의 없이 그곳의 무리들을 먹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기적적인 식사를 하고, 군중들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산으로 물러갑니다. 그 직후에 제자들은 아마도 가버나움 지역의 북서쪽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있었는데 폭풍을 만났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을 육지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것은 결국 군중, 식사, 군중을 경험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쫓아다니게 만듭니다. 또 디베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골란으로 갔으나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다시 가버나움 지역으로 쫓아가느니라.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것은 매우 어려운 담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암시하는 방법으로 기적의 식사를 사용하시고, 만나를 주신 분이 실제로 그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자신을 만나에 비유하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단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 가르치는데, 단순히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단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단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 단순히 배를 채우고 싶어하기보다는 그분을 경험하고, 관계하고, 어떤 의미에서 그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몫으로 흡수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매우 기괴한 것입니다. 기적의 식사. 그래서 이 본문은 매우 어려운 가르침이 됩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더 이상 그분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마지막에는 피터도 떠날 것인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 역시 이 시점에서 다소 비밀스럽게 유다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장은 5장에서 본 것처럼 약간의 불길한 예감과 갈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학이 많은 흥미로운 장이 됩니다. 다음으로 지리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6.1절에서 이 일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킨네렛(Kinneret)이라고 부릅니다. 3절과 15절에서 산에 대한 언급은 실제로는 명확한 장소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디베랴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를 만나기를 바라며 바다 건너편으로 왔고, 결국에는 가버나움에서 그분을 만나러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리는 본문에서 약간 복잡해집니다.

같은 것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산과 거기에 있는 사물을 보여주는 멋진 지형도입니다. 그것을 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오늘날 그 지역에 가면 가버나움 남서쪽에 있는 타브가에 있는 떡과 물고기의 증식 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의 제단 중 하나 아래에 멋진 비잔틴 모자이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든다면 이 문구가 새겨진 커피잔, 접시, 그릇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텍스트의 지리적 설정에서 다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세 번의 대화로 이어지는 두 가지 기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기적은 요한복음 6장 1-15절에 나오는 군중을 먹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네 복음서 모두에서 이야기되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이 이야기의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잇는 기적은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을 이차적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예수께서 물 위를 걷고 계시는 곳입니다. 이러한 식사 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하고 싶은 대화는 더 넓은 그룹에서 더 작은 그룹으로, 그리고 12명의 그룹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돌아가서 이것을 더 깊이 다시 살펴보겠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당황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1장 끝에서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그들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장에서 그것을 구심력이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예수의 가장 친밀한 동료들 안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움직임입니다. 가늠하기 어려운 것은 중앙에 있는 이 그룹입니다. 군중이든 군중이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보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이지만 여기 요한복음 6장의 가르침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책임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장을 조금 분석해 보는 것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어떤 면에서 따라가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에게 그들은 자신이 행한 일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본다는 단어에는 약간의 이중 의미가 있으며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신 후 산으로 돌아가신 일이 6장 14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땅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세계.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것은 메시아주의를 들여다보는 흥미로운 창입니다. 제2성전 유대인들은 신명기 18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명히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보기에 그들은 예수께 나아와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묘사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일종의 상관 관계가 있거나 메시아적인 왕 인물 대 메시아적인 예언 인물의 조합이 있든 사해 두루마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일부 텍스트에서 두루마리에도 메시아주의의 이중성이 있음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에 대해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던 메시아에 대한 대중적인 견해가 흥미롭습니다. 이는 7장에서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관해 많은 논쟁이 있고, 왜 이것이, 왜 저러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장에서 이에 대한 창의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억지로 그들의 왕이 되실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무슨 일이든 억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쫓아내어 인기 있는 메시아적 인물로 만들려고 했으나 그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녁에(16절) 제자들은 호수로 내려가서 분명히 동쪽에서 북서쪽으로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떠났는데 폭풍이 몰아쳐 아무데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시자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글쎄, 누가 당신에게 다가오는 인물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그를 잘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들이 노련한 어부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호수에 나가본 적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가벼운 작은 타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한 폭풍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공포는 정말 예외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를 배로 데려갔고, 분명히 그리고 기적적으로 배는 즉시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22절), 군중은 더 이상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보고 그를 따라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디베랴 사람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여기서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따라잡자 25절부터 강론과 변론과 어려운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그 후에 호수 건너편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응답입니다. 그는 그곳에 언제 도착했는지에 대해 그들에게 실제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그분을 찾는 그들의 동기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마음껏 먹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인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승인의 도장을 찍으셨다는 이 개념은

아마도 아버지께서 예수를 선물하시고,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능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장과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3장 끝에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구절을 이해하려고 시도할 때 우리에게 약간의 난관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한 일을 본 사람들과 자신이 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배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수준에서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표시가 가리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표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외적인 부분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표시가 묘사하고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가 실제로 누구였는지에 관해 이 긴 담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는 이미 그들에게 신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는 어떤 표징을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조상들이 그 사람을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32절에서 하늘에서 떡을 준 이는 모세가 아니요 내 아버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통해 훨씬 더 중요하게 행하고 계신 일을 설명하는 모호한 표현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도 이 물을 더 마시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빵을 더 먹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예수님의 동일한 의미, 동일한 유형의 교육 기법을 사용하여 영적인 요점을 만들기 위해 단어의 이중 의미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빨간 글자로 된 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빨간 글자로 된 성경의 35절부터 40절까지를 보시면 자신이 참으로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칼빈주의자인 우리도 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특히 37절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나에게 올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들은 결코 차를 몰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640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일을 암시하는 3장 14절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이 진짜 빵이시며 단순히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돌봐줄 사람이 있는 것보다 그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그가 말하는 것을 실제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빵 사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본문의 독자인 우리는 프롤로그를 읽은 후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대하려고 노력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구약성서 45절과 이사야 54장 13절의 암시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이삭의 본문을 언급하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해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과 빵 사이의 연관성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하늘에서 내려온 그들의 참 떡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은 내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줄 내 살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실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53절에서 예수님은 그 연관성을 두 배로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59절에서는 다시 지리적 배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여기서 자신이 참된 빵이며 영생을 얻으려면 문자 그대로 그분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함을 매우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제자들이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60절에서 우리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배경으로 삼아 너희가 이 일로 어려움을 겪으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가르치신다. 영은 생명을 줍니다. 육체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다시, 아마도 64절에서 유다에 대한 암시일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이유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분을 붙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실제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인자인 나에 대하여 그의 영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할지니라. 인자는 너희의 육신과 물질을 돌보며 너희 재물을 공급하러 온 것만이 아니라 서비스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12제자에게 이러한 일에 관해 말씀하시고 그들도 갈 것인지 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8절에서 베드로는 그룹을 대표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당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지금은 멋지고 따뜻하고 모호한 순간이다. 우리는 피터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하는 방식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자주 제자들을 대변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는 베드로도 자주 멍청한 짓을 하고 다른 제자들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피터는 아마도 한 순간에는 영웅이 되고 다음 순간에는 염소가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영웅적인 순간 중 하나이지만, 베드로가 여기에서 성취한 빛을 누리도록 허용하는 대신, 이 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와, 멋지고 따뜻하고 흐릿한 순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정말 멋지군요. 그래서 서술자는 나중에 자신을 배반할 가롯 유다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저자의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기 유다에 대한 몇 가지 암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이 본문이 전체 그룹에서 12명의 두 사람인 베드로와 유다까지

우리를 안내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현재 12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는 제자 중 한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실제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청중이 안고 있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하는 사람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갑작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식인 풍습의 냄새가 나는 것을 듣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히 유대인이 피를 마시는 것에 관해 듣는 것은 토라에 따르면 완전한 범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께서는 실제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살과 피에 관해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 그대로 그분을 마셔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에, 그분은 그들이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결과에 대해 말하는 요한복음 6장의 구절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결과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비교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6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빵의 비유에서 단순히 나에게 오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에게 오는 사람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분이 물질적인 빵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의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가 될 것입니다.

직유는 like 또는 as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빵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은 밥을 잘 먹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믿음은 당신이 영적으로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는 삶의 지점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 존재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다시 배고프고 목마르게 될 것이며 음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는 충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635년에 그가 말하고 있는 것과 651년에 그가 말한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생명의 빵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나에게 오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는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또한 6장 40절과 6장 54절을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해를 보고 믿는 자는 내가 생명의 떡인 것과 같으니, 나에게 오는 자는 또 나를 믿는 자는 . 그러므로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54절과 마찬가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해를 보고 믿고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느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예수와 식사를 하는 것과 예수를 먹는 것 사이의 다소 가혹한 비교(외면상 다소 기괴하게 들리지만)는 당신이 개인적으로 나를 그 인물로 삼지 않는 한 그들에게 말하는 갑작스러운 방식, 매우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아버지의 빵을 먹으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나는 때때로 특정 본문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 칼빈의 성경 강해와 그의 주석을 되돌아보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칼빈은 매우 영향력 있는 신학자였다.

칼빈은 또한 여러 면에서 현대 성경 주석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주석들은 그 당시에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단지 본문을 주제적으로 취하여 그에 대한 주제적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문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로마서 주석에서 자신의 후원자인 시몬 그리네우스(Simon

Grineus)에게 쓴 서문에서 주석 작성에 대한 나의 철학은 저자가 말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달성하고 싶은 것은 명쾌한 간결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자가 말한 내용을 명확하게 말한 다음 관련 없는 문제로 넘어가지 않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물론 칼빈도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고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이 특정 텍스트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칼빈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상황에 맞는 비유를 사용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즉, 생명의 떡 담론은 때로 불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군중을 먹이신 기적에 관한 리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소처럼 먹이를 찾으러 달려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꽤 좋은 라인이지 않나요? 그들이 소처럼 먹이를 찾으러 달려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비유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구성하시고 생명의 새 것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음식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영의 힘으로 우리에게 효과적인 복음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 가르침으로 양식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이 영혼의 생명과 관련이 있듯이, 믿음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모든 것은 음식에 비유됩니다. 나는 Calvin이 이 의견을 통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상적인 수준에서만 사물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묘사하는 현실에 대한 은유를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식에 관해 말씀하실 때 그들은 이 사람이 우리에게 먹이를 주면 우리가 배불리 먹을 것이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심으로써 자신이 그들의 필요와 원함뿐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늘로 내려오시는 참된 하나님의 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점은 표적과 믿음이 작용하는 방식과 이 특정 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문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직신학자가 되어 여러분에게 선택 교리나 그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어떻게든 관련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나 내쫓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상황을 표적과 믿음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챕터 2의 마지막 부분에서 처음으로 그런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았지만 실제로 표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실제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요한복음 6장은 표적과 믿음의 전체 문제에 또 다른 관점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성한 주권의 문제이며,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수를 통해 실제로 그것을 얻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을 통해 보여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명확하게 가르쳐야 하는 신성한 주권과 인간의 자유에 대한 전체 사고에서 이 구절을 고려하십시오.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모세의 예표가 요한에게 들어오는 방식이다.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선지자이냐는 질문을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이심을 믿게 되었느니라.

그 선지자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느끼는 모든 필요를 돌봐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신명기에서 본 선지자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는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주의하지 아니하면 신명기대로 후회하리라.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을 먹이실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식사와 물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광야 방황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시편 107편에서도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길게 반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배경을 알고 싶다면 출애굽기 12장, 시편 107장, 그리고 다른 본문들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여기서도 모세가 다시 한 번 이 본문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제로 율법이 모세에 의해 왔다고 말하는 프롤로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방황 동안 만나가 어떻게 기능했는지 이해하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여기에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추가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마도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나는 진술을 사용하시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을 것입니다. I am 진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정된 진술과 절대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때때로 한정된 진술, 내가 한정된 진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학술 문헌에서 술어가 있는 진술, 술어 진술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8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은 몇 가지 다른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그래서 우리는 John에게서 이런 종류의 진술을 많이 보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그 진술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 그것을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 외에도 절대적인 진술, 즉 예수께서 단순히 '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는데 아마도 8장에서일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흥미로운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8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진술을 예수님이 너무 많이 말씀하시고 가식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진술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거 없어. 따라서 우리가 John 8에 도달하면 이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것의 배경이 출애굽기 3장에 있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나는 지금의 나이다', '나는 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의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기 시작하는 '나는 그 사람'이라는 본문을 예수께서 암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그 중 몇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이것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여러분에게 실마리를 주기 위해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구절 모두 내가 생명의 빵이거나 여기 있는 것과 같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존재한다(I am)고 말하는 절대적 진술은 요한신학에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또한 여기에 유다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13장에서 유다가 자신의 비열한 행위를 험값에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정말로 당혹스러운 것은, 그리고 요한복음이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유다 백성을 위해 제공하시는 식사 방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찬 본문에 묶여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에서 사용된 언어를 보고 공관복음 전통에서 예수께서 다락방에서 상을 제정하신 구절과 비교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면,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신 다음,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옆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는 공관 전통에서 성찬 식사가 거행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그 한 가지 예로서 마태복음 26장을 잠시 되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니라. 물론, 여기 요한복음 6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빵을 가져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떡을 가져 감사를 드리신 후, 앉아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 26절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에 관한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는 구전이었을 공관복음 전통을 실제로 읽지 않았다면 이 글을 읽을 때 머리가 굽혔을 것입니다. 본문을 읽고 듣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빵과 잔의 의식인 성찬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 성찬의 본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고린도전서 11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전통을 묘사하고 그들이 주의 만찬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이 성체성사에 관한 본문이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는 특히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읽었을 때,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마지막 만찬에서 제정된 성찬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내용과 공관복음 전통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이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지만, 요한복음 13장에는 그들이 식사를 한다는 언급이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유월절 식사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 예식은 있지만 떡과 잔의 예식도 없고 제도도 없고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 요한의 성체성사 버전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그분이 성체성사로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예시하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요한은 그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성찬에 대한 낮은 교회의 견해로 주님의 식탁에 관해 수년 동안 교회에서 논쟁을 벌였던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약간의 휴식을 줄 것입니다. 상징적. 스펙트럼의 반대편에 있는 고등

교회인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 심지어 루터교에서는 성찬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하시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아마도 개혁주의 전통은 둘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칼빈은 성찬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명제를 강화하는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말씀의 부록이며,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을 올바르게 집중한다면, 요소를 받을 때, 심지어 세례에 참여하거나 관찰할 때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성찬을 참례하거나 참여할 때 성화의 은총을 받는 역동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은 아마도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우리에게 이것에 관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본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나 이슈는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식사에 대한 전체 신학과 음식이 종종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묘사하는 문제에 대해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피조세계의 양식을 주셨고, 그들이 그곳을 통해 다양한 본문에서 그것을 섭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3장에서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것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언급하신 유명한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 텍스트를 플라토닉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육체적인 음식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인간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가난과 기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식량 부족은 끔찍한 일이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은 중요한 것이며 인간이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유익에 대해 감사하는 것의 일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음식에 눈을

고정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문제였습니다(신명기 8장).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6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양식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 빵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 즉 음식, 의복, 안식처를 의미하며 단순히 하나님께 생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적용하여 성경 전체에서 식사와 음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생각해 보면 물론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제도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9장, 여호수아 5장, 열왕기하 23장, 에스라 6장에서 유월절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유월절 식사가 다시 시작되고 그 관습이 다시 규범적인 관습이 된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것은 출애굽기 16장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고, 구약의 다른 본문에서도 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 9장 15절의 본문이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음식을 공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특별한 식사를 마련하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떠난 것을 기념하고,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전체 전통 중에서 우리는 공관복음 전통에서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새로운 발전으로서의 성찬식과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의 교회가 아마도 매주마다 빵을 떼는 의식을 가졌던 방법입니다. 물론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의 지역 교회 관행으로 언급하고 고린도의 관행은 오용이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행해지는 합당한 방법에 대해 그들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식사는 주님의 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이 모든 식사는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 궁극적인 잔치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그러한 잔치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요한복음 2장, 에베소서 5장에서도 이 점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음식에 비유하여 너희가 음식을 먹는 것 같이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수세기에 걸쳐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그의 백성을 신실하게 공급하신 것처럼 당신도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을 보고 군중들의 경악을 이해할 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완전히 미루었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추종자들,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열두 제자와 연결시키셨습니다. 피터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유다의 부정적인 본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우리가 베드로와 같을 것인가, 아니면 유다와 같을 것인가로 범위가 좁혀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내려집니다. 우리도 떠나볼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삼키겠습니다. 예수님을 흡수하고 음식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미식가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딱 맞는 종류의 커피를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건드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다면 음식을 먹는 방식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는 먹는 것이 곧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인생에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그가 말하는 삶은 그를 흡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삶이다.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8과, 중요한 식사와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6:1-71.